



Kyo.Prot.N.38/2021

교토교구 신자분들에게

## 2021년 성령 강림 대축일 주교 메시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가 계속 되는 가운데,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정부로부터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되어, 교토교구도 교토후, 나라현, 시가현, 미에현의 일부에서 미사 중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힘을 냅시다. 성령께서 건강과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숨결을 부어 주시어, 생명을 지탱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께 희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올해 사목교서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에서 희망의 덕을 생각하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의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을 희망하며, 오늘을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완전한 종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믿으며, 희망의 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괴로움의 의미를 곧바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자신이 하느님에게 물으면서 시간을 들여서 괴로움의 의미를 찾아내 가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시작된 시점에서 혹은 괴로움이 한창일 때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느님의 위로와 살아갈 힘이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강해져 갑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 기도합니다. 미사 중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토교구의 모든 신자가 성령의 선물을 풍요롭게 받고, 기도 안에서 공동체의 유대와 일치로 지킬 수 있기를. 그리고 변호자, 위로자이신 성령을 받아 곤궁한 사람, 거절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소소하게나마 지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 교토교구 주교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